

# 13조 투자유치에 따른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008. 1

조택희 연구위원



충북개발연구원

## 〈요약〉

### ■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역내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생산유발효과	59,181	34,594	24,587
부가가치유발효과	23,305	13,943	9,362
고용유발효과	63,049	42,174	20,875

-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06년 경상 GRDP 기준으로 8.5%, 2007년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9.0%의 증가가 유발될 것을 기대 됨

### ■ 생산활동에 따른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생산유발효과	109,293	80,156	29,137
부가가치유발효과	35,340	26,628	8,712
고용유발효과	26,746	24,512	2,234

- 생산활동 유발효과는 2006년 경상 GRDP 기준으로 12.9%, 2007년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3.7%의 증가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 됨  
⇒ 투자유치에 따른 총효과 : 21.4% 경제성장, 12.7% 고용증가

### ■ 투자유치로 인한 연차별 총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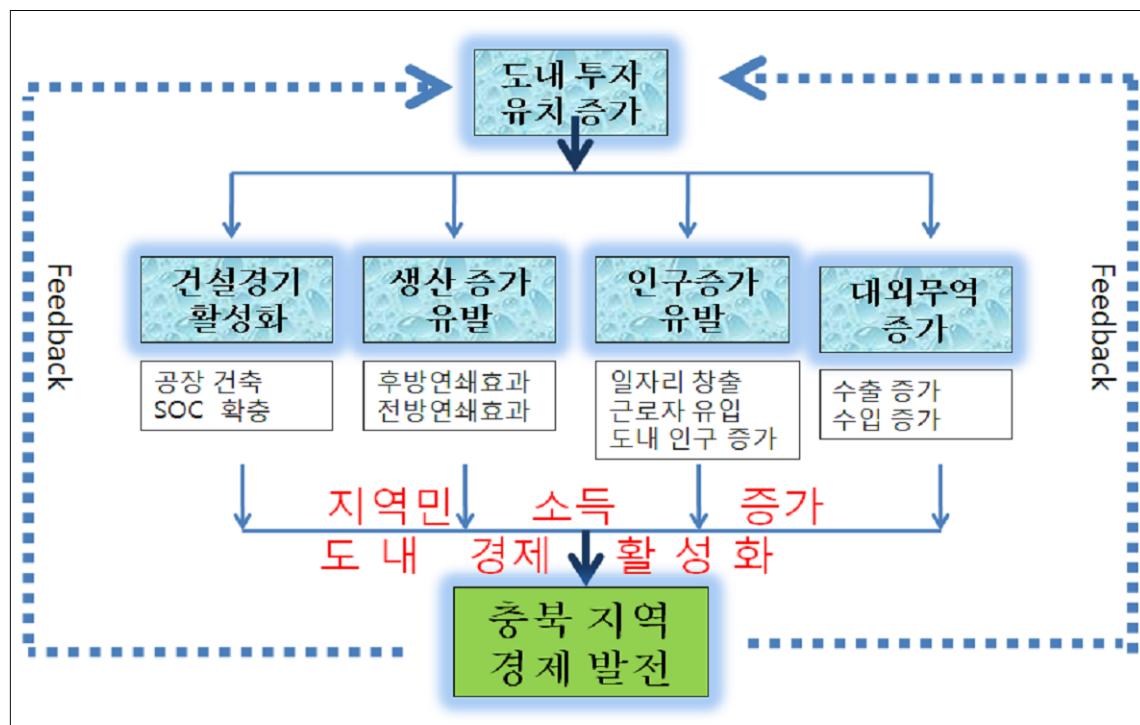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유발
2007	23,027	9,068	24,532
2008	45,594	16,517	31,830
2009	25,276	8,384	8,639
2010	8,893	3,048	4,188
총 파급 효과	102,790	37,017	69,189

## ① 투자유치의 의의 및 현황

### 1.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 민선 4기 출범이후 충북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지역 잠재성장력 제고,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
-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투자유치, 수출증대, 재정지출증대, 건설활성화, 고용증대 등을 제시하였음.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두 중요하며 그 중에 투자유치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 기업투자유치의 파급효과



- 기업 투자유치는 도내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
  - 도내 투자유치 증가는 건설부문 경기활성화 유발
    - 공장부지 및 공장건설 뿐만 아니라 기반인프라(SOC) 확충 유도

- 투자증가는 생산증가로 직결되며 투자기업의 생산은 전방 및 후방연관 효과로 도내 기업들의 생산 증가 시너지효과 발생
  - . 후방효과로 원재료와 중간재 수요 증가
  - . 전방효과로 도내 완성제품 생산 기업의 중간재 공급 증가
-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지역내 총수요 기반이 확대 됨.
- 지역내 생산활동 증가로 수입증가와 도내 생산품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여 대외거래가 증가하여 대외인지도가 높아짐.

## 2. 투자 유치 현황

- 민선 4기 출범 이후, 투자유치된 기업의 수는 75개에 달하며, 투자금액은 13조원을 초과하고, 직접적인 신규 고용인원도 25,366명 예상 됨

<표 1> 지역별 기업 투자유치 현황

(단위 : 건, 억원, 명, m<sup>2</sup>)

	건수	투자금액	고용인원	부지면적
괴산군	6	3,300	3,490	1,128,857
영동군	15	746	300	119,483
옥천군	4	500	430	93,060
음성군	6	5,445	1,910	399,453
제천시	8	840	668	136,488
증평군	6	9,590	3,100	553,814
진천군	8	2,796	1,410	552,216
청원군	13	12,337	4,320	913,685
청주시	5	93,816	9,358	200,210
충주시	4	830	380	130,825
계	75	130,200	25,366	4,228,091

주: 삼양화학(주)는 진천·청원에 공장건립하나 진천공장의 규모가 더 커 진천에 포함하였음.  
 투자면적과 부지면적 등은 기업에서 밝힌 자료의 단위 및 기준이 달라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지역별 투자금액은 청주시가 9조 3,81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원군 1조 2,337억원, 증평군 9,590억원 순임.
- 투자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동군 15건, 청원군 13건, 제천시와 진천군이 각각 8건 순으로 투자금액의 지역 편중 보다 완화 됨.
- 그러나 보은과 단양의 경우 투자유치가 한 건도 없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투자유치가 필요함

<표 2> 산업별 기업투자 유치 현황

(단위 : 건, 억원, 명, m<sup>2</sup>)

	건수	투자금액	고용인원	부지면적
1차금속	1	700	200	99,000
금속제품	5	488	485	93,501
기타제조	1	41	10	9,147
사업서비스	2	1,041	220	16,968
수송장비	5	1,470	645	152,008
음식료	5	2,203	2,110	441,252
인쇄	1	41	17	7,669
일반기계	3	428	340	37,820
전기전자	17	99,104	11,776	570,626
정밀기기	3	310	250	118,800
제지	1	50	25	7,515
화학제품	28	21,972	7,538	1,839,298
비금속광물	3	2,352	1,750	834,488
계	75	130,200	25,366	4,228,092

주: 기업에서 밝힌 주력 생산품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한 것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투자면적과 부지면적 등은 기업에서 밝힌 자료의 단위 및 기준이 달라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산업별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이 투자금액의 76.1%를 점하고 있어 미래에 IT업종이 충북의 중심산업이 될 전망.
  - 다음으로는 화학제품산업이 2조 1천 9백억으로 많은 투자액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존 충북의 산업구조와 유사함.

- 또한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과도 부합되고 있음.
- 산업별 투자유치건수는 화학제품 산업이 28개 업체로 전체 75개 중에서 37.3%를 차지함

<표 3> 투자유치 기업의 연차별 투자 예상 금액

(단위 : 건, 억원, 명, m<sup>2</sup>)

산업	투자액	2007	2008	2009	2010	2010 이후
1차금속	700	-	140 (0.2)	140 (0.2)	140 (0.2)	280 (0.4)
금속제품	488	70.9 (0.15)	238.1 (0.49)	135 (0.28)	44 (0.09)	0 (0.0)
기타제조	41	-	14 (0.34)	14 (0.34)	13 (0.32)	0 (0.0)
사업서비스	1,041	333 (0.32)	348 (0.33)	347 (0.33)	13 (0.01)	0 (0.0)
수송장비	1,470	37 (0.03)	413 (0.28)	380 (0.26)	408 (0.28)	232 (0.16)
음식료	2,203	76 (0.03)	467 (0.21)	396 (0.18)	389 (0.18)	875 (0.4)
인쇄출판	41	-	14 (0.34)	14 (0.34)	13 (0.32)	0 (0.0)
일반기계	428	85 (0.20)	115 (0.27)	114 (0.27)	114 (0.27)	0 (0.0)
전기전자	99,104	47,983 (0.48)	48,625 (0.49)	947 (0.01)	666 (0.01)	884 (0.01)
정밀기기	310	-	62 (0.20)	62 (0.20)	62 (0.20)	124 (0.40)
제지	50	-	17 (0.34)	17 (0.34)	16 (0.32)	0 (0.0)
화학제품	21,972	1,794 (0.08)	3,631 (0.17)	3,607 (0.16)	3,200 (0.15)	9,740 (0.44)
비금속광물	2,352	281 (0.12)	1,337 (0.57)	404 (0.17)	315 (0.13)	15 (0.01)
계	130,200	50,660 (0.39)	55,421 (0.43)	6,577 (0.05)	5,393 (0.04)	12,150 (0.09)

주: MOU 체결 기업이 제시한 투자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함. ( )는 산업별 투자유치금액 중 연도별 투자액 비중

투자면적과 부지면적 같은 기업에서 밝힌 자료의 단위 및 기준이 달라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투자가 향후 충북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총효과 뿐만이 아닌 연도별 파급효과를 살펴보아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알아야 함.
  - 그러나 투자계획을 밝힌 기업의 자료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밝힌 기업은 많지 않음.
  - 따라서 투자기간 동안 연도별로 투자규모가 상이할 것이나 자료획득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투자기간 동안 동일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 연차별 투자 전망을 보면 투자유치기업들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39%와 43%를 투자할 것으로 계획함
  - MOU 체결후 초기인 2007년과 2008년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이는 전체 투자금액 중, 하이닉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함.
  - 반면 화학제품 산업과 정밀기기 산업, 음식료 산업은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이 길어 총투자 금액의 40% 이상이 2010년 이후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 됨.

## [2]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1. 분석방법에 대한 개요

- 투자유치에 따른 충북경제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충북에서 조달되는 투자금액을 살펴보아야 함.
  - 본 연구에 적용된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의 충청권 산업연관표를 사용함.
- 충북 도내기업투자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북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러나 산업연관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상의 제약,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충청권의 산업구조와 충북의 산업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충청권 지역산업연관표를 적용함.
- 본 분석에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의 경제적 효과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분석함.
  - 파급효과는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와, 생산에 따른 파급효과로 나누어 추정함.
  - 또한 각 파급효과를 산업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 2.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역내 파급효과

### 가. 분석의 전제

- 투자액 중, 토지매입비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로 순수하게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제외하였음.
  - 토지매입비는 해당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크며,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편차가 크나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것에는 시간적·경제적으로 분석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토지매입비는 한국토지공사의 이전지역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공시지가로 산정하였음.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비는 생산시설 건축에 필요한 건축비와 시설장치에 필요한 설비비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 전체 투자비 중에서 생산시설 건물 등의 건축에 쓰이는 비중과 시설장치에 쓰이는 비중은 상이할 것임.
  - 즉,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을 요하는 산업일수록 건물건축에 투입되는 비중 보다는 시설장치에 투입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내부자료인 투자비 내역을 확보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투자비의 용도별 비중을 밝힌 기업의 평균치를 일반적인 기업의 투자행위로 가정하여 건축비와 설비비를 분리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분석시, 건축은 건설업, 시설설비는 일반기계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 그러나 이 때 발생한 최종수요도 모두 충북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즉,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해당 기계를 충북이 아닌 타지역 또는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 충북지역의 생산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임.
-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2003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함.
  -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충북의 산업연관표가 이의 작성에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됨.
  - 따라서 현재 활용가능한 충청권(대전·충북·충남)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함.
- 이에 따르면 투자와 관계된 주요 산업인 건설업과 일반기계의 경우 지역내 자급률은 각각 97.9%와 18.3%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충북이 투자유치에 성공한 약 13조 200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충북 도내에서 유발되는 투자규모는 약 3조 4,594억원 정도로 추산함.

#### 나. 유발효과별 직·간접효과

〈표 4〉 생산시설 조성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

(단위: 억원, 명)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생산유발효과	59,181	34,594	24,587
부가가치유발효과	23,305	13,943	9,362
고용유발효과	63,049	42,174	20,875

### (1)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는 75개 투자기업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분야별 건축공사비, 부대공사비, 설계/부대비를 합한 투자금액이 다른 산업에 얼마만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가를 분석하는 것임.
  - 직접효과란 75개 투자기업 건설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유발하는 생산액을 의미함.
  - 간접효과란 직접적으로 투자된 금액으로 인해 2차적으로 유발되는 관련 타산업의 생산증가액을 의미
- 투자기업의 건설에 따라 공장의 건설과 생산설비와 관계된 건설업과 일반기계 산업에서 3조 4,594억원 정도의 직접효과로 인한 생산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타산업 부문에서 약 2조 4,587억원(간접효과)의 생산유발로 직·간접효과를 더한 지역의 총 생산증가액은 약 5조 9,181억원(총효과)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2) 부가가치 유발효과

- 생산유발액이 모두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투자기업의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보기 위해서는 순수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임.
- 투자기업 건설의 부가가치 창출을 보면 총 2조 3,305억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지역에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직접효과는 약 1조 3,943억원, 간접효과는 약 9,362억원 정도로 나타남
  - 이는 2006년 충북의 경상 GRDP(27.4조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8.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됨.

### (3) 고용유발효과

-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중간재에 노동이나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지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생산을 유발하고 생

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시키게 됨.

- 고용계수를 통하여 신규투자기업의 생산시설 건설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를 살펴 볼 수 있음.
- 신규투자기업의 건설 사업기간동안 발생하는 총 고용유발효과를 보면, 약 42,174명의 직접효과와 20,875명의 간접효과가 발생하여 총 63,049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2007년 도내 취업자 수인 69만 4천명의 약 9.0%에 달하는 수치임.

#### 다. 산업별 유발효과

##### (1)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음.
- 산업별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건설업으로서 약 2조 6,448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투자액의 상당부분이 생산시설의 토목·건축비로 쓰이는 것에 기인함.
- 다음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일반기계로 약 1조 8,146억원 정도의 생산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생산시설 설비로 많은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이 외에 비금속광물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에서도 각각 2,673억원과 2,484억원 정도의 큰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이들 산업 역시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등의 재료와 관련 서비스산업에서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이 외에 제1차금속제품산업과 금속제품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됨.

##### (2) 부가가치 유발효과

-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건설업으로서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1,73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결과는 생산유발효과에서 건설업이 가장 크게 나온 것과 같음.
- 다음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일반기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로 각각 약 5,208억원과 1,813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생산유발효과와 비슷하나 부가가치율이 높은 부동산 및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 고용유발효과

-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40,03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고용유발효과가 63,049명의 약 63.5%에 해당하는 수치임.
  - 이는 기업들의 투자금액이 대부분 초기 생산시설 건설에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일반기계, 부동산 및 서비스업, 비금속광물제품산업에서 각각 12,137명, 1,807명, 1,472명의 순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반기계의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은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증가에 기인함

〈표 5〉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유발
농림수산품	102	62	51
광산품	271	175	133
음식료품	130	42	53
섬유및 가죽제품	50	15	51
목재및 종이제품	258	81	121
인쇄, 출판및 복제	36	15	48
석유및 석탄제품	252	91	9
화학제품	812	210	327
비금속광물제품	2,673	834	1,472
제1차금속제품	1337	257	333
금속제품	935	299	926
일반기계	18,146	5,208	12,137
전기및 전자기기	882	262	487
정밀기기	132	39	92
수송장비	105	27	45
가구및 기타제조업제품	62	22	57
전력, 가스및 수도	327	140	77
건설	26,448	11,735	40,037
도소매	208	128	490
음식점및 숙박	307	130	532
운수및 보관	706	364	1,271
통신및 방송	254	154	142
금융및 보험	669	471	888
부동산및 사업서비스	2,484	1,823	1,807
공공행정및 국방	11	8	19
교육및 보건	618	435	1,286
사회및 기타서비스	76	37	158
기타	889	240	0
계	59,181	23,305	63,049

### 3.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가. 분석의 전제

- 산업별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것이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별 생산액이 추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각 기업이 대표 생산품목이라고 밝힌 상품을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에 준하여 산업별로 구분함.
- 생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생산액이 추정되어야 함.
- 그러나 매출액 및 부가가치액 등은 기업 고유의 자료로 자료획득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각 기업에서 밝힌 예상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균 1인당 생산액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액을 추정함.
- 그러나 이는 매우 강한 가정으로 자료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해석에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즉, 섬유산업의 노동자 1인 생산하는 금액과 전자산업의 노동자 1인이 생산하는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분석함.
  - 분석에 사용된 1인당 생산액의 자료는 2006년 충북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평균 생산액인 3200만원을 적용함.

#### 나. 유발효과별 직·간접효과

<표 6> 생산에 따른 유발효과별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생산유발효과	109,293	80,156	29,137
부가가치유발효과	35,340	26,628	8,712
고용유발효과	26,746	24,512	2,234

##### (1) 생산유발효과

- 75개 업체 13조원이 투자유치 된다면 연간 약 10조 9,293억원 정도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 직접효과란 75개 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의미하며, 간접효과란 이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로 인하여 유발되는 관련 타산업의 생산증가액을 의미

- 75개 업체의 투자유치는 8조 156억원(직접효과) 정도의 생산증가와 더불어, 타산업 부문에서 약 2조 9,137억원(간접효과)의 생산유발로 직·간접효과를 더한 지역의 총 생산증가액은 약 10조 9,293억원(총효과)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2) 부가가치 유발효과

- 75개 투자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보기 위해서는 생산유발액 뿐만 아니라 순수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임.
- 75개 투자기업의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보면 총 3조 5,34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지역에 창출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직접효과는 약 2조 6,628억원, 간접효과는 약 8,712억원 정도로 나타남.
  - 이는 2006년 충북의 경상 GRDP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12.9%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발생함

### (3) 고용유발효과

- 추정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동인력이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생산활동에 따른 고용창출 정도를 추정할 수 있음.
  - 고용계수를 통하여 75개 투자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살펴 봄.
- 75개 투자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라 연간 발생하는 고용유발효과를 보면, 약 24,512명의 직접효과와 2,234명의 간접효과가 발생하여 총 26,746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2007년 충북취업자수의 3.7%에 해당하는 수치임.

## 다. 산업별 유발효과

### (1)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음.
- 산업별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으로서 약 4조 828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투자유치액 중에서 전기전자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함.
- 다음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화학제품과, 음식료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서 각각 약 3조 20억원, 7,424억원, 6,655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이들 산업에서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 산업과 화학제품, 비금속제품 산업에 신규투자 유치가 집중된 것에 기인함
  - 이 외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수송장비산업이 각각 2,678억 원, 2,580억원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됨.

### (2) 부가가치 유발효과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표 6>에 정리되어 있는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전자산업으로서 약 1조 2,121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화학제품으로 약 7,768억 원, 음식료품산업이 약 2,417억원, 비금속광물제품산업이 2,075억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약 1,966억원 정도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생산유발효과와 유사한 결과로 투자유치가 많이 이루어진 산업에서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남.

### (3) 고용유발효과

-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11,78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은 41명으로 앞의 건설에 따른 고용 파급효과(63.5%)와 비교해 볼 때 총고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0.15%).

<표 7> 생산에 따른 산업별 유발효과

(단위 : 억원, 명)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유발
농림수산품	1,980	1,212	209
광산품	468	302	48
음식료품	7,424	2,417	1,979
섬유및가죽제품	178	53	37
목재및종이제품	598	188	30
인쇄,출판및복제	147	61	19
석유및석탄제품	1,020	366	8
화학제품	30,020	7,768	7,515
비금속광물제품	6,655	2,075	697
제1차금속제품	1,826	351	438
금속제품	1,845	591	417
일반기계	1,421	408	345
전기및전자기기	40,828	12,121	11,780
정밀기기	989	292	251
수송장비	2,580	651	637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99	36	12
전력,가스및수도	1,399	600	73
건설	136	60	41
도소매	369	227	178
음식점및숙박	481	203	173
운수및보관	1,397	721	586
통신및방송	508	309	56
금융및보험	1,282	902	340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678	1,966	238
공공행정및국방	18	12	6
교육및보건	1,439	1,013	584
사회및기타서비스	115	57	51
기타	1,391	375	0
계	109,293	35,340	26,746

- 이는 건설업의 경우, 투입되는 노동인력이 많아 생산시설 건설로 인해 고용 유발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주요 투자유치 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이기 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생산증가로 인한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것에 기인함.
- 다음으로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이 각각 7,515명, 1,979명 순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③ 13조 투자유치에 따른 연도별 총 파급효과

- 13조원의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효과 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음.
- 따라서 투자유치에 따른 생산시설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와 생산활동 증가로 인한 파급효과를 연도별로 분석함.
  - 투자유치의 연도별 총파급효과는 MOU체결 기업이 밝힌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추정함.
  -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기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알아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못함.
  - 따라서 기업에서 밝힌 투자기간 동안, 전체 사업비의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함.

- 다만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는 유의할 점이 있음.
    - 본 분석은 2007년 말까지 투자유치된 기업의 투자만을 대상으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가정하여 이루어짐.
    - 즉, 분석된 수치가 해당년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현재까지 유치된 투자금액에 따른 효과에 국한 되는 것임.
    - 또한 모든 수치는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서 주관적으로 밝힌 투자계획 상의 금액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 투자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크게 나타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급격하게 감소함
  - 그러나 이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7년 말까지의 투자유치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 투자가 상당부분 2008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임.
  - 또한 전체 투자금액 중에 하이닉스 반도체의 투자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8년까지 투자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임.
  
- 생산유발 효과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2조 3,027억원, 2조 5,191억원이 발생하여 총 생산유발효과 5조 9,181억원의 82%가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함.
  - 2007년과 2008년에 부가가치 각각 9,068억원, 9,920억원이 유발되고 고용은 24,532명, 26,837명이 유발 됨.
  - 2009년 이후의 파급효과는 점진적으로 둔화되어 장기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전체 총파급효과의 18% 수준으로 전망됨.

<표 8>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연차별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연도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유발	비 중
2007	23,027	9,068	24,532	0.39
2008	25,191	9,920	26,837	0.43
2009	2,989	1,177	3,185	0.05
2010	2,451	965	2,611	0.04
2010이후	5,523	2,175	5,884	0.09

- 생산에 따른 파급효과는 시차적으로 생산시설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에 비해 늦게 이루어짐.
  - 이는 일반적으로 투자가 생산에 선행되기 때문으로 시설투자가 완료된 시점에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 2008년 이후에 높은 생산 파급효과가 발생함.
  - 따라서 대부분의 파급효과가 2010년 전에 일어나는 생산시설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와는 달리, 생산에 의한 파급효과는 2011년 이후에도 전

체효과의 10%를 상회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표 9> 생산에 따른 연차별 파급 효과

(단위 : 억 원, 명)

연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고용유발	비중
2008	20,403	6,597	4,993	0.19
2009	22,287	7,206	5,454	0.20
2010	6,441	2,083	1,576	0.06
2011	18,109	5,856	4,432	0.17
2012	15,597	5,043	3,817	0.14
2013	14,692	4,751	3,596	0.13
2013이후	11,763	3,803	2,879	0.11

-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증가와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활동 증가는 지역 경제성장을 크게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0년까지 75개 투자유치기업의 생산유발은 총 10조 2,790억원, 부가 가치는 총 3조 7,017억원, 고용유발은 총 69,189명에 달함

<표 10> 2010년까지 총 파급효과

(단위 : 억 원, 명)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유발
2007	23,027	9,068	24,532
2008	45,594	16,517	31,830
2009	25,276	8,384	8,639
2010	8,893	3,048	4,188
총 파급 효과	102,790	37,017	69,189

- 생산유발효과는 2007년 2조 3,027억원에서 2008년 4조 5,594억원으로 확대 된 이후 2009년 2조 5,276억원으로 하락 점차적으로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3조 7,017억원이며 이는 2006년 충북의 잠정

치 GRDP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임.

- 2010년까지 고용유발은 총 69,189명으로 2007년 취업자수의 9.9%에 해당하는 수치임.

- 이상에서 진행된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MOU 체결당시 각 기업이 주관적으로 밝힌 투자계획을 근거로, 계획대로 투자가 원만히 진행되어 금액과 시기에 차질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상 되는 파급효과 임.